

Date: 6 Iyar 5786 (April 26, 2026)

Torah Portion: Acharei Mot / Kedoshim

Topic: 삶 속 가운데, 그리고 죽음 가운데- 제 2 부

미드라시는 아하론의 죽음을 돌판의 깨어짐에 비유한 랍비 유단의 견해를 인용합니다. 현인들의 사상에서 돌판이 산산조각 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꼽힙니다. 그러나 탈무드는 돌판의 영적 본질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. 돌이 깨졌을 때 그 안의 거룩한 글자들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(Pesachim 87b). 따라서 이 비극은 거룩함이 객관적으로 언약의 약속이 파궤된 한 사건이 아니라, 그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주관적인 층에서 차단된 상실이었습니다. 사라진 것은 신성한 빛 자체가 아니라, 그 빛을 드러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혼들의 능력이었습니다.

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. 깨진 상태에서도 돌판은 그 신성함을 유지했지만, 이스라엘에게 신성한 지혜를 직접 전달하던 통로로서의 기능은 축소되었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돌판의 깨어짐은 거룩함의 소멸이 아니라 '숨겨짐;비밀'을 상징합니다. 빛은 위에 머물러 있는 반면, 아래에 남겨진 백성들은 부재와 거리감, 그리고 파편 조각들로 깨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. 이러한 역동성은 훗날 '갱신된 언약'에서 표현된 "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"(고후 3:6)라는 원리, 그리고 돌판에 쓴 언약이 마음판에 쓴 언약으로 대체된다는 가르침(고후 3:3)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. 즉, 신성한 실재는 파괴되지 않으며, 다만 그 실재에 접근하는 방식이 외적인 것에서부터 내적인 것으로 전이될 뿐입니다.

이와 동일한 틀을 아하론의 죽음, 나아가 모든 '짜딕(tzaddik, 의인)'의 죽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의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, 죽음은 신성한 봉사로 충만했던 삶의 완성을 의미합니다. 조하르(I, 122b)가 묘사하듯, 의인의 떠남은 영혼이 그 '마코르(מקור, 근원)'로 돌아가는 사건이기에 위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. 또한 미드라시는 의인의 죽음을, 최고로 아름다움에 이르는 장미 꽃을 꺾는 것에 비유하며(아가 랍바 6:6), 이것은 파괴가 아닌 '성취'의 행위로 여김 받습니다. 타냐(Iggeret HaKodesh 27)는 죽음 이후 짜딕의 영향력이 육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영혼의 범위가 더 높고 넓게 확장된다고 가르칩니다. 이는 의인의 죽음을 패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증거(increase)로 묘사하는 갱신된 언약의 관점, 즉 "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"라고 기록한 요한복음 12:24의 말씀과, "내게 사는 것이 마쉬아흐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"(빌 1:21)는 말씀과 공명합니다.

그러나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짜딕의 죽음은 큰 힘의 상실입니다. 람반(Ramban)은 의인이 세상으로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'라쨌(ratzon, 신성한 은총)'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. 그러한 인물이 떠날 때 그 은혜 빛이 흐르는 통로는 수축되며, 공동체는 현존하며 살아있는 신성한 임재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. 돌판의 깨어짐이 글자를 파괴하지는 않았으나 직접적인 접근성을 잃어버리게 했듯이, 짜딕, 의로운 자의 죽음 또한 그의 의로움을 소멸시키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접근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익을 거두어 갑니다.

이 부재의 비극은 샤마임(하늘들) 위에서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, 이 땅 아래, 물리적 세상에서 더 이상 닿을 수 없게 된 것에 있습니다. 이러한 긴장감은 갱신된 언약에서도 나타나는데, 의인의 떠남은 슬픔과 변혁을 동시에 일으킵니다. "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...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" (요 16:20)은 말씀은

의인의 돌아가심으로 상실감, 그 자체가 더 깊은 형태의 연결과 연합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층의 문이 됨을 시사합니다.

랍비 유단과 랍비 아바의 관점을 명확히 한 후, 미드라시는 랍비 히야의 의견으로 전환합니다. 랍비 히야에 따르면, 죽음을 맞이한 짜딕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그의 죽음을 순수하게 '대속적'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, 그의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 세대에 속죄를 가져옵니다. 그는 이 원리를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에서 도출합니다. 그들의 죽음은 명백히 본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으나(레 10:1-2),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욘 키퍼르(대속죄일) 의식과 인접하게 배치하여(레위기 16 장), 그들의 죽음과 속죄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.

욘 키퍼르와의 비유는 정교하고 교훈적입니다. 성전과 희생 제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'날' 자체는 속죄의 힘을 유지합니다.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전제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.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. "욘 키퍼르가 본질적으로 속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?"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는데, 속죄가 그날 드러지는 "코르반"(희생 제사)의 의식례에서만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드라시는 "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"(레 16:30)라는 구절에 주목합니다. "이 날에(ba-yom hazeh)"라는 표현은 가지고 오는 코르반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독립적으로 이 한날 자체가 속죄할 수 있는 "내재한 능력"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람반은 욘 키퍼르가 죄에 물들지 않은 이스라엘의 내면적 본질을 드러내며, 바로 이 내면의 '네쿠다(נקודה, 지점)'를 통해 속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. 이러한 내적 실재는 "그 피가 어찌...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[여호와] 엘로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"(히 9:14)라는 갱신 언약의 가르침과 평행을 이룹니다. 이는 진정한 속죄가 인간의 '프니미웃(pnimiyut, 내면)'에 닿아야 함을 강조합니다.

이 단계에서 미드라시는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합니다. 하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의 죽음만이 속죄한다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온전히 죄가 없지 않은 이들의 죽음도 속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지어집니까?

미드라시는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며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. "전혀 무죄하지 않은 의인의 죽음조차도 속죄를 가져온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?" 이전의 자료들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갈라진 견해를 주장하므로, 객관적 관점의 새로운 근거가 필요했습니다. 저울의 추를 한쪽으로 결정적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근거를 말합니다.

미드라시는 사울과 요나단의 기사에서 이를 발견합니다. 성경은 그들의 매장 후에 "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"(삼하 21:14)고 기록합니다. 이는 그들의 죽음이 신성한 은총의 회복을 가져왔음을 나타냅니다. 그러나 사울 자신은 명백히 죄를 지은 것으로 묘사됩니다. "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...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"(대상 10:13). 따라서 그의 죽음은 완전히 죄 없는 자의 죽음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민족에게 속죄를 가져왔고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열었습니다. 조하르(III, 56b)는 의인의 죽음이 영적 질서를 흔들고 신성한 자비를 일깨우기 때문에 그 세대를 위한 심판을 달콤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. 갱신된 언약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의인의 죽음이 접근을 허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. "우리가...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...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"(히 10:19-20).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새로운 연결이 확립되는 '샤아르(שׂוּר, 문)'가 되는 것입니다.

이 최종적인 증거는 랍비 히야의 입장을 지지합니다. 불완전한 의인일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통해 세대에 속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속죄의 힘은 개인의 완벽함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, 그들의 삶과 죽음이 맺고 있는 관계적, 언약적 영향력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. 결국 여호와의 계명이 새겨졌던 첫번째 돌판과의 비교는 더 깊고 방대한 인지층의 의미로 되돌아옵니다.

돌판의 깨어짐이 거룩함을 없애지는 않았으나 그 접근 방식을 유무를 변화시켰듯, 의인의 죽음 또한 그들의 영적 위상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현존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. 의인의 부재 속에서 즉시 일어나는 빛의 떠남과 그 영적의 빈 공간은, 그 남은 한 세대에게 새로운 자각에 절실히 매달려야 하도록 강요 받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자포자기한 "상실"로 끝날 수도 있고, 낭떠러지기에서 외 줄을 잡고 추락하지 않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매달려 올라가듯 지혜와 분별, 지식의 진리 영의 빛을 절실히 구하며, 그 이전보다 더 높고 넓은 은총의 "귀환(return)"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

그리고 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각이 성화되어가는 "귀환"으로 이어질 때, 그것이 바로 외적 조건 없이 부여 주시는 속죄의 기반이 됩니다. 이처럼 의인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'전이(transition)'임이 말씀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.

한 세대 의인의 숨겨짐은 그 세대에 남은 자들의 의식 세계를 높이는 각성을 낳고, 그를 잃은 상실감은 은총과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빛으로 '테슈바(teshuvah, 회개)'의 촉매제가 되며, 다시는 직접적으로 연결 할 수 없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그 거리감의 공허 자체가 남은 자들의 자아를 깨뜨리며, 여호와의 언약을 심장에 새김 받고 거룩하신 루아흐-네샤마로 갱신-승화 되는 신성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.

샬롬

"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호슈아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엘로힘, 나의 엘로힘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호슈아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" (마. 27:45-50)

“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호슈아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엘로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니라.” (눅 23:44-48)